

어부사(漁父詞)의 새 지평 : 북송 〈어가오(漁家傲)〉 사의 활용 양상 고찰

김 수 희*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불교 선리(禪理)의 도입 |
| II. 문인 교류와 고자사(鼓子詞) 가창 | V. 나오며 |
| III. 도교 사상 및 신선 제재의 활용 | |

I. 들어가며

〈어가오(漁家傲)〉는 〈어부(漁父)〉, 〈어가자(漁歌子)〉와 더불어 송대 어부사(漁父詞)의 주된 형식이다. 어부사는 어부 제재 문학 전통을 계승하여, 어부의 삶과 그 정취를 노래한 사(詞) 작품을 가리킨다. 가장 이른 어부사는 돈황곡자사(敦煌曲子詞)에 보인다. 돈황곡자사 〈완계사(浣溪沙)〉 2수 연장(聯章)은 어부가 “몸에 도롱이와 샷갓을 걸치고 낚싯대를 들었으며(身披篋笠執魚竿)”, 소유물로 “한 단지의 맑은 술과 한 낚싯대의 바람(一壺清酒一竿風)”만을 지녔다고 노래한다. 이러한 어부의 모습은 초당(初唐)과 성당(盛唐) 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¹⁾ 따라서 어부사는 돈황곡자사에서 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1) 唐 李頎의 〈漁父歌〉, 高適의 〈漁父〉, 岑參의 〈漁父〉 등은 어부를 백발노인, 滄浪叟, 避世, 濯足, 샷갓, 荷葉衣 등 《楚辭·漁父》 식의 표현을 애용했다.

문인 어부사의 시작은 중당 장지화(張志和)의 〈어부(漁父)〉(5수)이다.²⁾ 이는 안진경(顏真卿) 등의 문인 창화(唱和)와³⁾ 이후 남송 진진손(陳振孫)의 간행을 통해⁴⁾ 그 문화적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당 헌종(憲宗, 재위 805~820), 남당 이욱(李煜, 재위 961~978),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 등 역대 황제들의 지대한 관심과 창작으로 인해 그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일본 사가(嵯峨) 천황(재위 809~823)의 창화와 고려 문인 사회로의 전파 등 동아시아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송 어부사는 장지화의 어부사를 계승하여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북송 어부사는 주로 〈어부〉, 〈어가오(漁家傲)〉, 〈어가자(漁歌子)〉 사조를 활용하였다. 다만, 소식(蘇軾) 당시에는 장지화의 어부사가 이미 악곡이 실전되어 〈완계사(浣溪沙)〉, 〈정풍파(定風波)〉, 〈자고천(鷓鴣天)〉 등 다른 사조(詞調)로 대체되기도 했다.⁵⁾ 따라서, 북송 어부사는 〈어가오〉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⁶⁾

〈어가오〉 사는 기존의 어부사와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지닌다. 어부사 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중당 이후 은일 관념의 변화이다.⁷⁾ 중당 이후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문인 생활이 풍족해졌으며, 문인

-
- 2) 이는 《花間集》, 《尊前集》, 《金奩集》 같은 唐五代 詞集에서 모두 〈漁父〉로 표기한바 이를 따르되, 편의상 ‘어부사’로 통칭한다.
 - 3) 《基本古籍庫》, 《續仙傳》 卷上第一, “안진경이 호주 자사가 됐을 때 날로 문객들과 모여 술을 마셨는데, 이에 창화하여 어부사를 지었다(眞卿爲湖州刺史, 日與門客會飲, 乃唱和爲漁父詞).”(전자도서)
 - 4) 南宋 陳振孫이 찬한 《直齋書錄解題》에 《玄眞子漁歌碑傳集錄》 1권의 해제가 전한다. (《基本古籍庫》, 《直齋書錄解題》 卷十五)
 - 5) 《基本古籍庫》, 《能改齋漫錄》 卷十七樂府, “소식, 황정건, 서부(徐俯)는 이미 장지화의 어부사를 완계사, 자고천으로 지었다. 그 후에 호사가들이 이를 계승하여 지었다(東坡山谷徐師川, 旣以張志和漁父詞, 填浣溪紗鷓鴣天. 其後好事者, 相繼而作).”
 - 6) 〈漁歌子〉는 원래 唐 教坊曲名으로 나중에 詞體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송대 새로 대두된 어부사 사조로는 〈어가오〉가 유일하다.
 - 7) 田耕宇, 〈隱逸觀念的新變—從朱敦儒隱逸詞談中唐後的隱逸〉, 《河北師範大學學報》 第3期, 1996, 51-53頁.

의식 또한 선종(禪宗)을 수용하며 더욱 성숙해졌다. 이로 인해 은일 관념과 그 방식이 변화했는데, 이는 백거이(白居易)의 ‘중은(中隱)’ 사상으로 대표된다. ‘중은’ 사상은 관직이나 도심 속에 머물면서도 명리(名利)에 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일 관념은 ‘공치천하(共治天下)’를 주창했던 북송 사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결국 〈어가오〉 사는 새로운 은일 관념을 반영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중당(中唐) 이후 악곡 변화이다. 어부사의 악곡 변화는 장지화의 어부사에 뒤이어 창작된 석덕성(釋德誠)의 〈발도가(撥棹歌)〉를 통해 파악된다. 〈발도가〉는 〈어부〉와 형식은 같으나 내용과 주제는 불교의 선취(禪趣)를 노래하는 등 크게 다르다. 특히, 〈발도가〉는 법곡(法曲)으로 송대 불도(佛道)를 가창한 사를 선도했는데,⁸⁾ 이 법곡은 천보(天寶) 13년(745) 호악(胡樂) 신성(新聲)과 합쳐진 이후 점차 사의 음악인 연악(宴樂)으로 변화하였다.⁹⁾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발도가〉를 기점으로 어부사의 악곡이 바뀌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어가오〉 사의 명칭은 송 초 안수(晏殊)의 작품에서 유래하였다. 안수는 〈어가오〉 제1수에서 “신선일곡어가오(神仙一曲漁家傲)”라고 하며 이 사조를 신선의 악곡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인식은 〈발도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발도가〉는 도교적 색채가 강한 법곡이었고, 승려의 창작으로 불교적 색채까지 더해졌으며, 특히 ‘어가오’로 불린 적도 있다.¹⁰⁾ 따라서 안수가 말한 ‘신선의 악곡’은 〈발도가〉 및 그 계열의 작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어가오〉 사는 〈어부〉와 〈발도가〉를 기반으로

8) 《基本古籍庫》, 《釋氏要覽》 三卷卷下, “법곡자: 또, 남방 스님이 ‘어부발도자’를 지었다. (지금 불도를 가창한 사는 모두 그 유품이다(法曲子: 又南方禪人, 作漁父撥棹子. 唱道之詞, 皆此遺風也).”

9) 《基本古籍庫》, 《夢溪筆談》 卷五, “당 천보 13년으로부터 비로소 조서가 내려 법곡과 호부를 합주하였다. (중략) 호부와 합쳐진 것이 연악이 되었다(自唐天寶十三載, 始詔法曲與胡部合奏, …… 合胡部者爲宴樂).”

10) 《文淵閣四庫全書》, 《山谷集山谷詞》, “〈어가오〉 또 강녕의 합수처에서 바람에 길이 막힌지라 재미 삼아 보녕 용 선사를 본받아 옛 ‘어가오’를 짓는다(又江寧江口阻風, 戲效寶寧勇禪師作古漁家傲).”(電子版)

하여 송대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어가오〉사의 연구는 어부사 연구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송대 어부사 연구로는 학위 논문 두 편이 있는데,¹¹⁾ 어부사의 통시적 흐름과 송대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6년에 비로소 〈어가오〉사만을 다룬 단독 연구가 발표됐는데,¹²⁾ 〈어가오〉사의 음악성을 밝히고 송대 유명 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불 제제의 활용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요인을 어부와 승려의 생활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만 국한하여 불교 어부사의 효시인 〈발도가〉를 간과하고 있다.

이후 송대 〈어가오〉사를 대상으로 문인 간의 창화(唱和) 양상과 어부 이미지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거나, 이를 ‘문인화(文人化)’ 과정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잇따라 등장하였다.¹³⁾ 특히, 가창 방식에 착안하여 연장(聯章)이나 은관(隱括)의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은¹⁴⁾ 〈어가오〉의 고자사(鼓子詞)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문학, 음악, 희극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북송 〈어가오〉사에 나타난 새로운 문학적 변용에 주목하려 한다. 먼저, 중당 장지화로부터 비롯된 문인 창화의 전통을 검토하고, 이와 결부된 고자사로서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북송 〈어가오〉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인 도불(道佛) 관련 면모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북송 〈어가오〉사가 어부사의 문학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송대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11) 權梨舟, 〈論宋代漁父詞〉,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吳丹, 〈宋代漁父詞研究〉, 貴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12) 陳鑫·劉尊明, 〈試論宋代《漁家傲》詞的創作與嬗變〉, 《齊魯學刊》 第1期, 2006, 133頁.

13) 曹辛華, 〈論唐宋漁父詞的文化意蘊與詞史意義〉, 《南京師大學報》 第6期, 2007; 鄧喬彬, 〈唐宋漁父詞的文人化發展〉, 《文史哲》 第1期, 2009; 田甘, 〈北宋後期漁父詞的發興與新變〉, 《周口師範學院學報》 第6期, 2010.

14) 鄭麗鑫, 〈宋代聯章漁父詞略論〉, 《牡丹江教育學院學報》 第2期, 2008; 沙振坤外, 〈淺論宋代《漁家傲》十二月節詞的定型〉, 《語文教學通信》 第1期, 2016.

II. 문인 교유와 고자사(鼓子詞) 가창

1. 문인 교유와 송별

장지화의 어부사는 안진경(顏真卿)이 주도한 문인 연회에서 창작되었다.¹⁵⁾ 안진경과 당시 연회에 참석한 문인들은 모두 장지화의 어부사에 창화(唱和)했는데, 이로부터 문인 연회의 어부사 창화는 문인 교유의 한 양상이 되었다. 이처럼 문인 어부사는 태생적으로 문인 연회와 거기서의 문인 교유와 관련이 깊다. 송 초 안수는 수상(水上) 연회에서 문인들과 교유하며 〈어가오〉사를 가창하였다. 안수와 동시대 인물인 송기(宋祁) 역시 서호(西湖)의 연회 자리에서 당공(唐公)과 교유하며 〈어가오〉사를 가창했다.¹⁶⁾ 이는 문인 연회의 〈어가오〉가창이 북송 문인 교유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구양수(歐陽修, 1007~1072)는 안수를 본받아 〈어가오〉사를 다수 창작하였다.¹⁷⁾

一派潺湲流碧漲, △	한 줄기 졸졸 흐르는 물이 불어나고
新亭四面山相向. △	새 정자는 사방으로 산을 향해 있네.
.....	(중략)
更待高秋天氣爽, △	한가을 맑은 날을 다시 고대하여
菊花香裏開新釀. △	국화 향기 속에 새 술을 연다네.
酒美賓嘉眞勝賞. △	술맛 좋고 손님 좋아 진실로 빼어난 감상인데,
紅粉唱, △	붉은 단장의 여인이 노래하니

15) 앞의 주석 3) 참조.

16) 《基本古籍庫》, 《宋景文集》 卷二十三, “(憶與唐公游西湖) 당시 연석에서 어가오를 가창했는데, 내가 살핀 것은 안수의 연꽃을 노래한 어가오였다(時席上唱漁家傲, 予省是臨川公荷花曲).”

17) 구양수의 〈어가오〉는 〈어가오〉 19수(채런 8수, 칠석 3수, 중앙절 4수 포함), 〈어가오〉 채런 5수, 〈어가오〉 월령체 24수 등, 총 48수에 달한다.

山深分外歌聲響. △ 산이 깊어 유난히 노랫소리 울리네.
 北宋 歐陽修, 〈漁家傲〉(12수) 제1수¹⁸⁾

이 사는 〈어가오〉 12수 중 제1수로 경력(慶曆) 6년(1046) 구양수가 저주(滁州) 지주일 때 지은 작품이다.¹⁹⁾ 제2구는 〈취옹정기(醉翁亭記)〉의 첫 구절처럼²⁰⁾ 이 연회가 저주의 산중에서 열렸음을 알려준다. 구양수는 ‘좋은 손님’과 ‘국화’로 빚은 술을 마시면서 기녀의 〈어가오〉 가창을 즐긴다. 이는 수상 연회에서 연꽃을 감상하며 〈어가오〉 사를 가창한 안수의 경우와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문인 연회를 산중으로 확장하였고, 국화주를 통해 도연명(陶淵明)의 문인 교유를 연상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어가오〉 사를 통한 문인 교유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어가오〉 사에서 문인 송별의 주제도 다루었다.

顧我薄才無可用, △ 나를 돌아보면 재주 박하여 쓸모가 없지만
 君恩近許歸田壠. △ 군주의 은혜로 근래 전원 돌아감을 허락받았네.
 今日一觴難得共, △ 오늘 한번 술 들고 나면 함께하기 어려울 터,
 聊對捧, △ 잠시 마주하여 술잔 드니
 官奴爲我高歌送, △ 관기(官妓)가 나 대신 높은 곡조로 진송하네.
 北宋 歐陽修, 〈漁家傲〉(12수) 제2수 하편²¹⁾

이 사는 〈어가오〉 제2수에 해당한다. “강정공 조개(趙槩, 995~1083)에게 주다(與趙康靖公)”라는 부제를 통해 이 사가 희녕(熙寧) 5년(1072) 조개²²⁾ 구양수가 있던 영주(潁州)를 방문했을 때²³⁾ 지어졌음을 알 수 있

18) 唐圭璋 編纂, 《全宋詞》, 北京: 中華書局, 1999, 163頁.

19) 吳熊和 主編, 《唐宋詞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4, 211頁.

20) 《基本古籍庫》, 《歐陽文忠公集》 卷三十九, “저주를 둘러싼 것은 모두 산이다(環滁皆山也).”

21) 唐圭璋 編纂, 위의 책, 163頁.

22) 趙槩는 구양수와 중서성에서 함께 있던 인물인데, 희녕 초 관직을 그만두고 수양(睢陽, 지금의 河南省 商丘)에 귀향하여 있었다.

다. 당시 구양수는 조개를 위해 서당(西堂, 훗날의 會老堂)에서 연회를 열었다. 특히, 마지막 세 구절은 노년의 두 문인이 느끼는 진한 송별의 정을 담아냈다. 구양수는 이러한 심정을 ‘높은 곡조’의 〈어가오〉사를 가창함으로써 둘의 변치 않는 우정을 기렸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안수가 〈어가오〉가창을 통해 영원히 함께 즐기길 축원한 것과²⁴⁾ 대비된다. 이처럼 〈어가오〉사조는 단순히 연회를 즐기는 풍류를 넘어, 교유와 송별 등 문인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소식(蘇軾, 1037~1101)에 이르러 〈어가오〉사는 문인 송별의 문화적 행위로 자리 잡게 된다.

千古龍蟠并虎踞, △	용이 서리고 호랑이 웅크린 천혜의 고도
從公一弔興亡處, △	왕공 따라 흥망성쇠의 금릉을 조문해보네.
渺渺斜風吹細雨, △	아득하게 비긴 바람에 이슬비 내리는데,
芳草渡, △	봄풀 가득한 나루터에서
江南父老留公住, △	강남의 부로가 그대 붙들고 만류하네.

北宋 蘇軾, 〈漁家傲〉(千古龍蟠并虎踞) 상편²⁵⁾

이 사는 소식(蘇軾)이 원풍(元豐) 7년 금릉(金陵, 지금의 江蘇省 南京市)의 상심정(賞心亭)에서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왕승지(王勝之)를 전송하며 지은 작품이다. 사의 상편은 금릉 나루터에서 송별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그 부제에서 송별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서술하였다.²⁶⁾ 이처럼 사의 부

23) 《基本古籍庫》, 《歐陽文忠公集》 卷一百五十三, “(會老堂致語) 회녕 임자년, 조개가 남경에서 영주로 구양수를 방문하였다(熙寧壬子, 趙康靖公自南京訪公于穎).”

24) 《基本古籍庫》, 《珠玉詞》, “(漁家傲 其三) 좋은 술 한잔으로 객을 붙잡는 연회, (중략) 자주 축원하네, ‘연꽃과 연잎처럼 늘 서로 보기를’(美酒一杯留客宴, ……頻祝願, 如花似葉長相見).”

25) 唐圭璋 編纂, 《全宋詞》, 앞의 책, 370頁.

26) 이 사의 부제에서 “금릉 상심정에서 용도직학사 왕승지를 전송한다(金陵賞心亭, 送王勝之龍圖)”라고 하였다.

제를 통해 송별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식은 소식의 다른 〈어가오〉 사에도 나타난다.²⁷⁾ 이처럼 소식은 〈어가오〉 사조를 채택하고 거기에 부제를 덧붙여 문인 송별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어가오〉 사의 창작은 문인 송별의 문화적 행위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2. 경물 가창과 월령제

〈어가오〉 사는 애초에 고자사로 시작되었다. 고자사(鼓子詞)는 북을 반주 악기로 동일 사조를 연속 가창하여 고사를 읊는 것이다. 유영제(劉永濟)는 고자사를 동일 성질의 여러 이야기를 나열하는 횡배식(橫排式)과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는 직서식(直敘式)의 두 방식으로 나누고, 둘 다 문인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오락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였다.²⁸⁾ 유영제는 또한 고자사가 처음에 경물을 썼다가 나중에 점차 고사를 읊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강창(講唱) 고자사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동일 사조를 연창하여 경물이나 단순한 고사를 읊는 고자사가²⁹⁾ 이미 문인 연회에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문인 연회의 고자사 가창은 오대 남당(南唐) 문화에 보인다. 당시 고평중(顧闳中)은 후주(後主, 李煜)의 명으로 한희재(韓熙載)의 밤 연회를 그렸는데, 이 〈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에는 연회에서 북을 반주 악기로 하여 가무를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안수는 강서(江西) 출신으로 남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고자사 가창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구양수도 마찬가지다. 구양수의 고자사는 유영제가 제시한 고자사 5종 중 2종을 대표한다. 하나는 서문이 있는 〈채상자(採桑子)〉 고자사이고, 다

27) 해당 작품은 〈漁家傲〉(些小白鬚何用染), 〈漁家傲〉(千古龍蟠并虎踞), 〈漁家傲〉(送客歸來燈火盡), 〈漁家傲〉(一曲陽關情幾許)의 4수다.

28) 이하 서술은 劉永濟, 《宋代歌舞劇曲錄要》,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27頁, 49頁, 참조.

29) 박홍준은 강창 고자사와 구분하여 ‘악곡 고자사’로 칭하였다. 박홍준, 〈鼓子詞의 分類와 그 文學史的 意味〉, 《中國文學》 110輯, 2022, 26-30쪽.

른 하나는 한 사조의 반복 횟수가 격식으로 정해진 정격연장(定格聯章) 〈어가오〉 십이월고자사(十二月鼓子詞)이다.

구양수의 고자사와 달리, 안수의 〈어가오〉는 고자사라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어가오〉 고자사라고 할 수 있다.

畫鼓聲中昏又曉, △	채색 북소리에 날이 저물다가 또 밝는데
時光只解催人老, △	세월은 그저 사람 늙기를 재촉할 줄만 안다.
求得淺歡風日好, △	풍광 좋은 때 얕은 즐거움을 찾아야 하니,
齊揚調, △	일제히 높고 맑은 곡조 부르세
神仙一曲漁家傲, △	신선의 노래 〈어가오〉를.
	北宋 晏殊, 〈漁家傲〉(14수) 제1수 상편 ³⁰⁾

위의 사는 안수의 〈어가오〉 채련사 14수 중 첫째 수이다. 이는 연장체 고자사인데, 다음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제1구의 ‘화고’는 채색 북으로 반주 악기에 해당한다. 또, 고자사 식 구성을 취하였다. 고자사는 처음과 마지막 작품이 작품을 열거나 닫는 역할을 한다. 즉, 첫 작품에서 전체 주지를 밝히고 마지막 작품에서 이전과 다른 풍격을 드러내는 것이다.³¹⁾ 이에 따르면, 위의 사는 채련의 언급 없이 ‘급시행락(及時行樂)’만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의 전체 주지에 해당한다. 또, 마지막 작품은 연꽃을 꺾어두길 권하는데,³²⁾ 이는 연꽃 호수를 즐기던 중간 12수와 대비된다. 이처럼 처음의 주제 제시, 중간을 채련사 가창, 마지막의 독특한 마무리는 이 〈어가오〉 채련사가 고자사임을 방증한다.

안수의 〈어가오〉 채련사는 채련곡의 남녀유희에서 벗어나, 연꽃 호수의 풍경과 그 감상을 산뜻하게 노래하였다. 이러한 수경(水景) 묘사는 이후 〈어가오〉사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30) 唐圭璋 編纂, 앞의 책, 126-127頁.

31) 劉航, 〈鼓子詞考論〉, 《中國詩歌研究》, 第12輯, 2016, 43-44頁.

32) 《基本古籍庫》, 《珠玉詞》, “(漁家傲) 단장한 모습 꺾어두는 것이 어떠하리(何似折來妝粉面).”

平岸小橋千嶂抱, △ 평탄한 언덕 작은 다리에 첩첩 산이 에워싸고
 柔藍一水縈花草, △ 연초록빛 강물은 꽃과 풀을 감돈다네.
 茅屋數間窈窕, △ 초가집 몇 칸뿐이어도 창은 아름다우니,
 塵不到, △ 먼지 이르지 않아도
 時時自有春風掃, △ 수시로 쓸어주는 봄바람이 절로 불어온다네.

가) 北宋 王安石, 〈漁家傲〉(平岸小橋千嶂抱) 상편³³⁾

春水歸期端不負, △ 봄 강물로 돌아올 기약 저버리지 않을 터
 依依照影臨南浦, △ 아련히 그림자 비치며 남포에 임하였네.
 留取木蘭舟少住, △ 목란 배 잠시 머물라고 만류하지만,
 無風雨, △ 비바람 없이
 黃昏月上潮平去, △ 황혼 무렵 달이 뜨며 만조가 빠지네.

나) 北宋 賀鑄, 〈吳門柳·漁家傲〉(窈窕盤門西轉路) 하편³⁴⁾

위의 두 사는 모두 물가 풍경을 묘사하였다. 가)는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정계에서 물러나 은거할 때 지은 사로, 그가 사는 띠풀 집 주변의 산수풍경을 그려내었다. 나)는 하주(賀鑄, 1052~1125)의 사로, 오문(吳門)의 버드나무를 읊어서 ‘오문류(吳門柳)’라고도 한다. 사의 하편은 남포가의 버드나무가 떠나는 배를 붙잡으려는 듯 스치지만, 황혼 무렵 배도 떠나고 만조도 빠지면서 달빛만 고요해진 풍광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어가오〉 사는 경물, 특히 수경을 묘사하는 데 뛰어난 면을 보여준다.

구양수는 〈어가오〉사에서 독자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변화는 바로 월령체(月令體)의 도입이다. 이는 일 년 열두 달의 정해진 격식에 따라 〈어가오〉 사조를 열두 번 연속하여 가창한다.³⁵⁾

正月斗杓初轉勢, △ 1월은 북두성 자루가 처음 돌아가는 형세
 金刀剪彩功夫異, △ 황금 칼로 오린 인승(人勝)은 솜씨가 남다르다.

가) 北宋 歐陽修, 〈漁家傲〉(12수) 제1수 상편 일부만

33) 唐圭璋 編纂, 앞의 책, 264頁.

34) 唐圭璋 編纂, 위의 책, 686頁.

35) 이 형태는 유영제가 분류한 고자사 5종 중 定格聯章에 해당한다.

十二月嚴凝天地閉, △ 12월은 엄동설한 천지가 숨어 감추니
 莫嫌臺榭無花卉, △ 누대와 정자에 화초가 없다고 싫어 말라.
 惟有酒能欺雪意, △ 오직 술만이 흰 눈을 업신여기나니,
 增豪氣, △ 호매한 기상 더하여
 直教耳熱笙歌沸, △ 귀가 뜨겁도록 생황 가락 들끓게 한다.

나) 北宋 歐陽修, 〈漁家傲〉(12수) 제12수 상편³⁶⁾

위의 사는 〈어가오〉 십이월고자사(十二月鼓子詞)의 처음과 마지막 작품이다. 가)는 1월의 별자리 변화와 함께, 인일(人日, 음력 1월 7일)에 인승(人勝)을 만들어 장식하던 풍습을 담고 있다. 나)는 12월이 엄동설한이라 화초 대신 술과 음악을 즐기는 풍경을 노래하였다. 이때의 음악은 ‘생황 가락’과 십이월고자사의 가창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어가오〉 십이월고자사는 일 년 열두 달의 시간 흐름에 따라 세시풍습, 자연 풍광, 문인의 일상 등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어가오〉 월령체는 남송 시기 고자사 창작의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어가오〉 사의 시기별 연장(聯章) 형태는 고려의 어부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어부사는 장지화의 〈어부〉가 아닌 〈어가오〉 사조를 채택했고,³⁷⁾ 고려 말에는 ‘어부사시시(漁父四時詩)’,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같은 한시 연작(連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흥 어부사는 〈어가오〉 사, 그중에서도 〈어가오〉 월령체 고자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36) 唐圭璋 編纂, 앞의 책, 173頁, 175頁.

37) 박완식, 〈「漁父詞」 研究 - 그 類型과 思想的 背景을 中心으로〉,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8쪽.

Ⅲ. 도교 사상과 신선 제재의 활용

1. 장수(長壽)의 축원

〈어가오〉 사는 송대 도교의 현실 중시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삶을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원한 존재에 대한 추구는 현실 너머의 신선 세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수의 축원은 채련곡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채련곡은 남조 시기에 궁중 가무로 향유됐는데, 채련녀로 분한 가무기(歌舞妓)가 황제에게 헌화(獻花)나 헌신(獻身)을 맹세하는 헌사(獻辭)로 마무리된다. 송나라 초에는 강남의 채련 문화가 중시되었다. 그 영향으로 사대부 문인들도 남조의 채련곡을 본받아 연회에서 기녀의 채련곡 가창을 즐겼다. 따라서 문인 채련사 역시 기녀가 직접 사랑이나 우정의 영원함을 축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愿妾身爲紅菡萏, △	원하건대 제 몸은 붉은 연꽃 되어
年年生在秋江上. △	해마다 가을 강가에 살게 하소서.
重愿郎爲花底浪. △	거듭 원하건대 낭군은 연꽃 밑의 물결 되어,
無隔障, △	막힘 없이
隨風逐雨長來往. △	비 따라 바람 따라 영원히 오가소서.
	北宋 歐陽修, 〈漁家傲〉 제12수 하편 ³⁸⁾

위의 사는 구양수의 〈어가오〉 13수 중 제12수이다. 이 작품은 채련녀가 낭군과의 관계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특히, ‘원하건대’와 ‘거듭 원하건대’의 축원 방식을 통해 여인의 두 가지 소원을 빌고 있다. 하나는 자기 존재가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 즉 연꽃이 되는 것이고, 다

38) 唐圭璋 編纂, 앞의 책, 192頁.

른 하나는 낭군도 연꽃 밑의 물결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자는 것이다. 이는 안수 〈어가오〉의 “좋은 술 한 잔으로 손님 붙잡는 연회에서 (중략) 연꽃과 연잎처럼 영원히 마주 보세(美酒一杯留客宴, …… 如花似葉長相見)”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원 방식과 영원성 추구의 결합은 장수의 축원에 〈어가오〉 사조를 활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소철(蘇轍, 1039-1112)의 다음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七十餘年眞一夢, △	칠십여 년은 진실로 한바탕 꿈
朝來壽罍兒孫奉, △	아침에 축수의 술잔을 자손들이 받쳐준다.
憂患已空無復痛, △	근심과 우환이 이미 비어 다시 고통 없고
心不動, △	마음 흔들리지 않는데
此間自有千鈞重, △	이 사이에 절로 천 균의 소중함이 있도다.
	北宋 蘇轍, 〈漁家傲·和文人祝壽〉 상편 ³⁹⁾

위의 사는 소철이 문인들의 생일 축수에 화답한 작품이다. 이는 사의 부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사의 내용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에서 소철은 칠십을 넘어 맞은 생일에 자손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축원해주자, 이를 계기로 자기 삶을 돌아본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번민도 없어졌는데 이 속에서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이를 통해 〈어가오〉사가 북송 문인 사회에서 생일의 축수와 그 화답에 활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칠석의 애정 고사

칠석은 음력 7월 7일로, 고대의 별자리 숭배에서 비롯되었다. 《시경·소아·대동(大東)》은 은하수 가의 견우성과 직녀성을 제시했는데,⁴⁰⁾ 이후 동

39) 唐圭璋 編纂, 앞의 책, 460頁.

한 말에 이르러 두 별에 남녀 인물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즉, 두 별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말도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으며,⁴¹⁾ 이러한 모습은 멀리 떨어진 채 서로 그리워하는 남녀 인물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후 견우직녀의 애정 고사는 점차 세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⁴²⁾ 송대 이르러사에서 본격적으로 노래하게 되었다.

구양수는 〈어가오〉 칠석 사 3수를 창작했는데, 견우직녀의 애정 고사 중 두 사람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다.

喜鵲填河仙浪淺, △ 雲軒早在星橋畔. △ …… 天上佳期貪眷戀. △ 奕奕天河光不斷, 有人正在長生殿. 暗付金釵清夜半, 千秋願, 年年此會長相見.	까치가 은하수 메우니 신비한 물결 알아지고 직녀의 구름 수레 서둘러 오작교 곁에 있구나. (중략) 하늘 위의 좋은 만남은 사랑하기를 탐한다네. 가) 北宋 歐陽修, 〈漁家傲〉 제14수 일부분 반짝반짝 은하수는 끊임없이 빛나는데 마침 장생전에 있던 사람이 있다네. 고요한 한밤중 몰래 금비녀 주면서, “천년세월 바라건대 해마다 이리 만나 영원히 보게 하소서.” 나) 北宋 歐陽修, 〈漁家傲〉 제15수 하편 ⁴³⁾
--	---

위의 두 작품은 두 사람의 만남을 노래하였다. 가)는 은하수의 오작교에

40) 《基本古籍庫》, 《毛詩·小雅·大東》, “하늘에 은하수 있어, 역시 빛나 보이네. 저 직녀성 보자니 (중략) 배 한 필도 이루지 못하네. 저 밝은 견우성은 수레도 끌지 못하네(維天有漢, 監亦有光. 跂彼織女, …… 不成報章. 睨彼牽牛, 不以服箱).”

41) 《基本古籍庫》, 《文選》 卷二十九, “(迢迢牽牛星) 아득히 먼 견우성, 밝디 밝은 직녀성. (중략) 넘실거리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뜻하게 말도 전하지 못하네(迢迢牽牛星, 皎皎河漢女 ……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

42) 칠석 고사의 형성 과정은 張莉, 〈宋代七夕詞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6頁.

43) 唐圭璋 編纂, 앞의 책, 165頁.

서 직녀가 견우와 만나는 장면을 썼고, 나)는 은하수에서 양귀비(楊貴妃)가 당 현종(玄宗)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나)에서 ‘장생전에 있던 사람’은 양귀비를 가리킨다. 당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의하면, 당 현종은 방사(方士)의 도움으로 바다의 신선 산에 있는 양귀비를 만나는데, 그녀는 금비녀를 주면서 “천상에서든 인간 세상에서든 만나서 서로 보아요(天上人間會相見)”라고 맹세한다. 따라서 나)의 공간은 은하수 부근의 신선 산 봉래궁(蓬萊宮), 즉, 신선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만남의 공간이 인간 세상이 아닌 신선 세계이다.

이처럼 〈어가오〉 칠석 사는 신선 세계를 그 배경으로 한다. 이는 송대 칠석 사와 사뭇 다른 면모이다. 송대 칠석 사는 세시풍속을 다룬 작품이 많다.⁴⁴⁾ 칠석은 한나라 때부터 바늘구멍 꿰기, 직녀에게 제사 지내기, 밤 새우며 소원 빌기, 옷이나 책을 말리는 등 다양한 풍습이 전해져 왔으며, 송나라에 이르면 그 풍습이 더욱 성대해진다. 예컨대, 도성 개봉의 부귀한 집 정원에 채색 천으로 엮은 걸교루(乞巧樓), 거리 곳곳에 판매되는 작은 흙 인형 마갈락(磨喝樂) 등등.⁴⁵⁾ 이러한 새로운 풍습은 칠석 사의 참신한 제재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어가오〉 칠석 사는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의 전통을 따라 견우와 직녀, 두 신인(神人)의 애정 고사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3. 신선 세계의 동경

〈어가오〉 사조는 그 명칭이 안수의 “신선의 한 악곡 〈어가오〉(神仙一曲 漁家傲)”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앞서 신선의 악곡은 도교 악곡인 도곡(道曲)을 가리키는데, 도조(道調)와 법곡(法曲) 같은 이러한 악곡들은 송대 점차 연악(宴樂)으로 바뀌면서 사의 음악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악곡 특성

44) 賈平, 〈宋詞與民間文化〉,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42-46頁.

45) 南宋 孟元老, 《東京夢華錄》(卷八) ‘七月七夕’에 그 풍습이 자세하다.

으로 인해 〈어가오〉 사조는 도가와 신선 관련 제재를 다루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청조(李清照)의 다음 작품은 그 대표작이다.

天接雲濤連曉霧, △	하늘 맞닿은 구름 물결은 새벽안개로 이어지고
星河欲轉千帆舞, △	은하수 옮겨갈 때 수많은 배가 춤을 춘다.
仿佛夢魂歸帝所, △	꿈속의 혼이 천제의 거처로 돌아간 듯이
聞天語, △	하늘의 말씀이 들리는데
殷勤問我歸何處, △	정녕 나에게 어디로 돌아갈지 묻는다.
我報路長嗟日暮, △	내가 알리길, 길 멀고 날 저물어 탄식하는데
學詩謾有驚人句, △	시를 배워 헛되이 놀라운 시구 있으니,
九萬里風鵬正舉, △	구만리 바람 타고 봉새가 막 솟구치면
風休住, △	바람이 멈추지 말고
蓬舟吹取三山去, △	갈대 배를 불어 삼산에 이르게 하소서.
	宋 李清照, 〈漁家傲·記夢〉 ⁴⁶⁾

이 시는 이청조(李清照, 1084~1155)가 지은 것으로, 꿈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있다. 처음 두 구는 꿈속의 공간 이동을 서술하였다. 이는 수평선에서 하늘로 이어지고 다시 은하수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꿈의 공간은 우주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데, 여기에 하늘의 물음과 자신의 대답을 배치하여 그 의미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녀는 시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만 이러한 자질은 인간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고 한탄하며, 자신을 ‘삼산’의 신선 세계로 보내 달라 청한다. 특히, 《장자·소요유(逍遙遊)》의 ‘구만리 바람’, ‘봉새’ 등의 표현을 활용한 것은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유와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시는 꿈을 기록하고 신선 세계를 다루어 신비롭고 호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심미 공간도 드넓고 상상력이 풍부한 낭만주의 작품으로 평가된다.⁴⁷⁾ 결과적으로 이청조의 〈어가오〉 시는 호방한

46) 唐圭璋 編纂, 앞의 책, 1202頁.

풍격을 통해 북송 완약사(婉約詞)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IV. 불교 선리(禪理)의 도입

1. <어가오> 단조(單調)와 그 변화

<어가오> 사조는 앞서 밝혔듯이 중당 석덕성(釋德誠)의 <발도가(拔棹歌)>와 관련이 깊다. 석덕성은 수주(秀州) 화정(華亭, 지금의 上海 松江區)에서 배를 타고 오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를 알아 보지 못하고 ‘뱃사공 스님[船子和尚]’이라 불렀다.⁴⁸⁾ 이때 지은 그의 <발도가>는 실천 수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禪宗)의 교리를 충실히 담아내었다.⁴⁹⁾ 나중에 그는 자신을 찾아온 협산(夾山) 스님 앞에서 배를 뒤집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는 인간의 정과 모든 번뇌를 끊으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47) 夏承燾, 《唐宋詞欣賞》,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3, 74頁.

48) 《基本古籍庫》, 《五燈會元》卷五, “수주 화정에 이르러 작은 배를 한 척 띄우고 인연 따라 세월 보내며 사방에서 왕래하는 자들과 교류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그가 도를 깨우친 선사인 줄 모르고 그저 ‘뱃사공 스님’으로만 불렀다. (중략) 협산이 떠나가면서 자꾸 돌아보자, 선사가 드디어 ‘스님’하고 불러 협산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선사가 노를 세우더니 ‘당신이 말하려던 별난 경지’라고 말하고 이내 배를 뒤집고 물에 빠져 죽었다. (至秀州華亭, 泛一小舟, 隨緣度日, 以接四方往來之者. 時人莫知其高蹈, 因號船子和尚 …… (夾)山乃蹻行頻頻回顧, 師遂喚闍黎. 山乃回首, 師暨起橈子, 曰汝將謂別有. 乃覆船入水而逝)”

49) 中唐 釋德誠, <拔棹歌>(第七首): “수행 필요 없다고 수행 안 한다고 말하지 말라, 깨달음이 멩하니 앉아 있다고 어찌 구해지랴. 부지런함으로 노를 삼고 지혜로 배를 만드니, 이 사내는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된다(莫道無修便不修, 菩提癡坐若爲求. 動作棹, 慧爲舟, 這個男兒始徹頭).”(上海文獻叢書編委會 編, <船子和尚拔棹歌>,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年, 23頁)

이러한 석덕성의 행적에 감화된 승려들은 어부사를 적극적으로 창작하여⁵⁰⁾ 송대 ‘불교 어부사’ 내지 ‘선종 어부사’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불교 어부사에서 〈어가오〉 사조를 선택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흥미롭게도, 승려들은 장지화의 어부사를 지향했음에도, 거의 〈어가오〉 사조를 채택하였다. 다만, 〈어가오〉 사조는 본래 상편과 하편으로 된 쌍조(雙調) 형태이지만, 초기 불교 어부사에서는 한 편(片)으로 된 단조(單調)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一泛孤舟無寸土, △	외로운 배 한 번 띄운 후로 한 치 땅도 없으니
那愁王役差門戶, △	어찌 왕의 부역으로 집에서 차출되길 근심하랴.
山映碧波浸古曲, △	산의 모습 비치는 푸른 물결에 옛 곡조 스미니,
淸雲霧, △	맑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
誰能更問佛兼祖, △	누가 다시 부처와 조사를 물을 수 있으랴.
	北宋 投子義青, 〈漁父〉(二首), 제1수 ⁵¹⁾

위의 사는 투자의청(投子義青, 1032~1083)의 〈어부〉(二首) 중 첫 작품이다. 투자의청은 가우(嘉祐) 10년(1065) 선종 조동종(曹洞宗)의 정종(正宗)이 된 승려이다. 조동종은 고요히 앉아 좌선하는 묵조선(默照禪)을 수행 법으로 삼는 종파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부의 고요한 경지를 노래하였다. 그는 어부의 삶은 조정의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고, 어부사를 즐기며 불교 교리는 따지지 않노라 하였다. 여기서 ‘외로운 배’는 속세와의 단절을, ‘푸른 물결’의 ‘맑은 구름과 안개’는 고요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다. 이처럼 이 사는 단조의 형식이지만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불교 어부사는 작품 제목은 〈어가오〉가 아니지만 〈어가오〉의 단조 형식을 취한 작품이 많다. 하지만, 점차 〈어가오〉의 쌍조 형식으로 변화해간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마침내 〈어가오〉의 사패 명을 쓰

50) 송대 불교 어부사의 창작 개황 및 작품 원명, 수량, 출처는 周夢, 〈釋家詞寫作傳統研究〉, 江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58-59頁.

51) 《CBETA 電子佛典集成》, 《投子青和尚語錄》 卷上 (전자도서).

고 쌍조 형식을 완비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 우선, 과도기의 작품 중 〈어가오〉 단조 2수를 쌍조로 보는 경우를 살펴본다.

七寶池中堪下釣, △	칠보 영롱한 연못에 낚싯대 드리울 만하고
八功德水烟波渺, △	여덟 공덕의 못물에 안개 물결 아득하네.
池底金沙齐布了, △	연못 바닥은 금빛 모래 고루 깔렸으니
羨魚鳥, △	부럽게도 물고기와 새들은
周回旋绕为阶道, △	빙빙 돌며 계단식 길을 만들었네.
白鹤孔雀鸚鵡噪, △	흰 학과 공작새에 앵무새도 지저귀며
彌陀接引毫光照, △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에 한 줄기 빛이 비치네.
不是修行何得到, △	수행하지 않고서 어찌 도달할 수 있으랴,
一般好, △	이리도 좋은
西方淨土無煩惱, △	서방 정토에는 번뇌가 없네.

北宋 淨端, 〈漁家傲〉⁵²⁾

위의 사는 원래 정단(淨端, 1030~1103)의 〈찬정토(讚淨土)〉 2수이다. 정단은 귀안(歸安, 지금의 절강성 吳興) 사람으로 오산(吳山)에서 불도(佛道)를 익혔다. 그는 《법화경(法華經)》에 밝은 승려로서 어부사의 가창을 즐겼다.⁵³⁾ 위의 어부사는 어부의 삶이 서방 정토에 이르는 수행 법임을 말했는데, 앞 수 마지막 구의 ‘계단식 길’이 다음 수의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에 이르는 수행법을 가리킨다. 이는 《법화경》에서 삼승(三乘, 聲聞, 緣覺, 菩薩)의 단계별 수행을 통해 성불(成佛)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과 성불의 경지가 연결되면서 두 작품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 사는 〈어가오〉 사조의 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⁵⁴⁾

52) 唐圭璋 編纂, 앞의 책, 820-821頁.

53) 《基本古籍庫》, 《僧寶傳》 卷十九, “단사자는 오흥 사람이다. 법화경 암송에 뛰어났으며 (중략) 어부사를 잘 불렀는데, 달밤이면 반드시 새벽이 될 때까지 어부사를 노래했다(端師子者, 吳興人也. 能誦法華經, …… 好歌漁父詞, 月夕必歌之達旦).”

한편, 〈어가오〉 쌍조를 단조 2수로 보는 경우가 있다.

本是瀟湘一釣客, △	본래 소상 강의 낚시꾼 하나
自東自西自南北, △	동서남북 자유로이 다닌다네.
只把孤舟爲屋宅, △	오직 외로운 배를 집 삼으니,
無寬窄, △	넓고 좁음 없이
幕天席地人難測, △	하늘 덮고 땅을 깔아 남은 헤아리기 어렵다네.

頃聞四海停戈革, △	근래 온 세상에 전쟁 그쳤다는 소식 들었지만
金門懶去投書冊, △	서책 바치려고 금마문(金馬門) 가기 귀찮네.
時向灘頭歌月白, △	때때로 물가에서 밝은 달 노래하니
真高格, △	진실로 고고한 품격이라
浮名浮利誰拘得, △	덧없는 명예와 이익에 그 누가 얽어매랴.

北宋 圓禪師, 〈漁家傲〉⁵⁵⁾

위의 사는 불교 어부사 중 가장 이른 원선사(圓禪師)의 작품이다. 호주(湖州) 감로사(甘露寺)를 주관한 원선사는 어부사 20여 수를 창작했으나,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 작품뿐이다.⁵⁶⁾ 그런데, 사의 상편과 하편이 분리된 감이 있다. 상편이 자유로이 오가는 어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했다면, 하편은 조정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은 중간 연결 고리가 약해 연결성이 떨어진다. 〈어가오〉의 단조 형태로 불교 어부사를 짓던 영향이지 않나 짐작된다.

원선사의 〈어가오〉 사를 계기로 혜조(慧照), 수애선사(壽涯禪師), 달관담영(達觀曇穎), 차암정규(借庵淨珪), 소림묘송(少林妙崧) 등 다수 승려들

54) 정단의 어부사는 《湖州吳山端禪師語錄》(卷下)에 〈漁父詞〉와 〈讚淨土〉 각 4 수씩 총 8수가 수록되었는데, 唐圭璋은 《全宋詞》에서 이를 〈漁家傲〉 4수로 수록하였다.

55) 唐圭璋 編纂, 앞의 책, 283頁.

56) 《CBETA 電子佛典集成》, 《羅湖野錄》 上卷, “호주 감로사의 원선사는 어부사 20여 수가 있는데, 세상에 많이 전하는 것은 한 수뿐이었다(湖州甘露寺圓禪師有漁父詞二十餘首. 世所盛傳者一而已).”

의 <어가오> 사가 잇달아 창작되었다. 다만, 이들 작품은 주제가 어부의 삶과 무관해졌다. 예컨대 혜조는 원오선사(圓悟禪師)를 찬미했고,⁵⁷⁾ 수에 선사는 관음상을 읊었으며,⁵⁸⁾ 나머지 승려들 역시 석덕성(釋德誠)의 행적을 찬미하는 데 집중했다. 따라서 불교 어부사는 <어가오>의 사패 명과 쌍조 형식을 갖추게 되었지만, 내용과 주제는 어부사와 무관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가오> 고자사에 더욱 분명해진다.

2. 불교 고자사(鼓子詞)

<어가오> 사조는 안수와 구양수에 의해 고자사로 창작되면서, 고자사로 창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불교 어부사는 <어가오> 사조의 채택 이후 고자사가 활발히 창작되었다. 일례로,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은 보리달마(菩提達磨), 영운선사(靈雲志勤), 석덕성, 백장회해(百丈懷海) 등 선종 고승 4인의 일화를 읊은 <어가오> 4수를 창작하였다. 황정견과 교류한 시승(詩僧) 혜홍(惠洪, 1070~1128) 역시 <고승의 행적을 서술하려 지은 어부사 8수(述古德遺事作漁父詞八首)>를 창작했으며, 작품의 부제에 고승의 이름을 표기하였다.

혜홍의 <어부사>는 황정견 사와 마찬가지로 한 수에 고승 한 명의 일화를 읊었다. 즉, 만회(萬回), 단하(丹霞), 보공(寶公) 등 여덟 고승의 일화를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 선자화상(석덕성)을 읊은 작품을 살펴본다.

萬疊空青春杳杳, △ 겹겹이 텅 빈 푸른 산에 봄빛은 아득하고
 一蓑煙雨吳江曉, △ 도롱이 입고 안개비 속에 오강의 새벽을 맞네.

57) 《CBETA 電子佛典集成》, 《增集續傳燈錄》, “(北宋 慧照 漁家傲) 범문 말씀은 바다 물결 치솟듯이 소리가 웅장하고, 밝은 깨달음은 밝은 달처럼 허공을 비춘다(辯湧海潮聲浩浩, 明如皓月當空照).”

58) 《基本古籍庫》, 《少室山房筆叢》, “(漁家傲·咏魚籃觀音) 아름답고 풍만한 자태는 비할 데 없구나. 물고기 들고 파시니, 마량이 관음보살과 혼인하려다 낭패 본 일을 비웃을 만하다(窈窕豐姿都沒賽, 提魚賣, 堪笑馬郎來納敗).”

醉眼忽醒驚白鳥, △	취한 눈이 문득 깨어나 흰 새에 놀라는데,
拍手笑, △	손뼉 치며 웃으니
清波不犯魚吞釣, △	맑은 물에서 고기가 낚시를 물지 않네.
津渡有僧求法要, △	나루터의 승려가 법의 요지를 구하러 왔는데
一橈爲汝除玄妙, △	노로 처서 그를 위해 현묘함을 제거하였네.
已去回頭知不峭, △	이미 떠나며 돌아보니 지혜가 예리하지 못하고
猶迷照, △	여전히 빛에 헤매니
漁舟性燥都翻了, △	어부는 성미 급해 그만 배를 뒤집어버렸네.
	北宋 釋慧洪, 〈述高德遺事作漁父詞〉(船子) ⁵⁹⁾

이 사는 석덕성의 일화를 노래하였다. 상편은 오강에서 배를 타고 유유 자적 즐기는 생활을 읊었는데, 선자화상의 삶인 동시에 어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롱이’와 ‘안개비’의 표현은 장지화의 어부사에 나온 말로 어부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하편은 석덕성이 협산(夾山)에게 깨달음을 전수하고 배를 뒤집어 죽은 일화를 서술하였다. 한 사람을 읊는다는 측면에서 영물사(詠物詞)에 가까운데, 이러한 영물이나 경물 묘사는 고자사의 주요 활용 방식이다. 이러한 〈어가오〉 고자사는 불교 어부사의 한 갈래를 이룬다.

가민(可旻)의 〈어가오·찬정토(讚淨土)〉(并序) 20수는 불교 어부사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사는 작품 맨 앞에 서문이 있고, 칠언절구와 〈어가오〉 사조를 연이어 가창하여 정토종(淨土宗)의 불교 교리를 노래하였다. 다음에서 그 서문 및 시사의 혼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집 어부는 범상치 않네. (중략) 인옥의 도롱이를 걸쳐서 무명의 안개비를 가리네. 자비의 뜻을 달고, 방편의 바람을 맞네. 반야(般若)의 조각배를 저어, 생사(生死)의 고해를 노니네. 맑은 산달에 맹세하고 맑은 바닷바람 느끼니, 물에 빠져 가라앉은 중생을 건져서 열반의 바구니로 돌아오

59) 《基本古籍庫》, 北宋 慧洪, 《石門文字禪》 卷十七.

게 하네. 이와 같은 뜻이 바로 평생의 삶이었네. 잠시 낚싯대를 내려놓고, 이에 시를 남긴다. 집에서 늘 고요히 지내 본래 한가로이 노닐었는데, 고통의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잡게 되었네. 중생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때에야 비로소 낚싯대를 드리우지 않으리. (我家漁父, 不比泛常. …… 披忍辱之蓑衣, 遮無明之煙雨. 慈悲帆挂, 方便風吹. 撐般若之扁舟, 遊死生之苦海. 誓山月白, 覺海風清. 約汨沒之衆生, 歸涅槃之籃籠. 如斯旨趣, 卽是平生. 暫歇釣竿, 乃留詩曰; 家居常寂本優游, 來執魚竿苦海頭. 直待衆生都入手, 此時方始不垂鈎)

西望東邦雲杳隔,
一鈎新月彎彎白.
意欲往生何計策,
勞魂魄,
彌陀一念聲千百.

서방 정도 바라보니 구름이 아득히 가로막고
갈고리 모양 초승달은 굽이지어 하얗네.
마음으로 왕생을 바라지만 무슨 계책이 있으랴.
괴로운 영혼이여
아미타불 염불 한 번이 수많은 소리로 화하네.

金殿玉樓爲屋宅,
七重行樹強松柏.
華里托生非血脉,
眞高格,
樂天不是蓬萊客.

황금 궁전과 옥 누각이 집이 되고
일곱 겹 나무 행렬이 송백보다 굳세네.
연꽃 속에서 새 생명 얻으니 혈연이 아닌
진정으로 고상한 품격이라
백거이도 봉래산의 신선은 아니었네.
北山法師 可旻, <讚淨土漁家傲·(并序)>, 제12수⁶⁰⁾

위의 예시는 가민의 <어가오> 사의 서문과 칠언절구 및 제12수 사이다. 가민은 생졸년 미상으로 북산법사(北山法師)로 불리던 승려 시인이다. 서문과 칠언절구 시에서 ‘도롱이’와 ‘안개비’는 장치화 어부사의 전통을 이었지만, ‘바다’는 불교의 ‘고해(苦海)’를 빗댄다. 따라서 그는 인생의 고훘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어부가 되어 낚싯대를 드리운 이유다. 사의 상편은 ‘서방 정도’, ‘왕생’, ‘염불’ 등의 용어를 통해 아미타불의 염불 수행과 극락왕생을 바라는 정도종의 교리를 말하였고, 하

60) 唐圭璋 編纂, 앞의 책, 3113頁, 3116頁.

편은 ‘황금 궁전’, ‘옥 누각’, ‘연꽃’ 등을 통해 극락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토종의 교리와 이상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형식 면에서 고자사의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다. 즉, 서문이 있는 점은 구양수의 〈채상자〉 고자사와 같지만 사조 앞에 시가 있다. 이러한 시사의 혼용은 고자사보다 전답(轉踏)에 가깝지만, 전답처럼 가무대(歌舞隊)를 이끄는 말은 없다. 또, 칠언절구와 〈어가오〉 사를 연이어 가창한 점은 남송 대무(隊舞)와 같지만, 이는 그 가창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가민의 〈어가오〉 사는 여러 요소가 혼재된, 다소 특이한 형태의 고자사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불교 공연에 당시 민간 문예 요소가 반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V. 나오며

중국 문화에서 어부는 세속을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다. 어부와 그의 가치관은 전국 시기 유가와 도가 사상이 더해진 후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당나라 때 어부 제재의 시가가 활발히 창작되었지만, 중당 장지화의 〈어부〉 이후로는 어부사(漁父詞)의 창작이 대세가 되었다. 송대 어부사 중 〈어가오〉는 송 초 안수가 새로 만든 사조로, 기존의 어부사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지닌다. 이는 중당 이후 은일관념의 변화와 악곡 변화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송 〈어가오〉 사의 새로운 면모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문인 연회에서 고자사로 향유된 점이다. 송 초 안수와 송기는 수상 연회에서 〈어가오〉 사의 가창을 새로운 문인 문화로 유행시켰고, 구양수는 〈어가오〉를 문인 교유와 송별에 활용하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이후 소식은 〈어가오〉 사의 창작만으로 문인 송별의 문화적 행위가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어가오〉 사는 문인 교유와 송별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 〈어가

오)는 고자사의 형태로 가창되었는데, 이는 한 사조를 연이어 가창하며 경물 묘사나 간단한 고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어가오> 사는 수경 묘사에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 구양수는 또한 월령체 ‘십이월고자사’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남송 시기 어부의 삶이나 서호십경(西湖十景) 등을 노래한 고자사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도교 사상과 신선 제재를 활용한 점이다. <어가오>는 도교의 현실 중시 경향을 반영한다. 즉, 현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불로장생을 추구하고 신선이 되길 기원했으며 신선 세계를 동경하였다. <어가오> 사에서 불로장생은 축원의 방식과 결합했는데, 이러한 장수(長壽)의 축원은 남송 시기 <어가오> 생일 축수 작품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어가오> 사에 나타난 신선 이야기는 견우직녀의 사랑과 이별처럼 신선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신선 존재에 대한 애호는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확장되었다.

셋째, 불교 어부사를 창작한 점이다. 이는 <어가오> 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송대 승려들은 장지화의 <어부>를 계승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창작에서는 <어가오> 사조를 활용하였다. 초기 불교 어부사는 제목은 ‘어부’ 등이었으나, 형식은 <어가오>의 한 편(片)만 활용하였다. 단조 형식은 점차 쌍조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거쳤으며, 이후 <어가오>의 사패 명과 쌍조 형식을 온전히 갖춘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어가오>는 더는 어부의 삶을 노래하지 않고, 여러 수에 걸쳐 여러 고승의 일화나 서방 정도 찬미 같은 불교적인 내용에 집중하였다. 즉, <어가오>의 쌍조 형식과 고자사 창법을 따랐지만, 그 내용과 주제는 기존의 어부사와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북송 <어가오> 사의 면모는 송대 어부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장지화의 <어부> 전통을 잇는 흐름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새로 대두된 <어가오> 사조가 송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어부사의 범주를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북송 <어가오> 사는 송대 어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어부사를 단순히

은일 문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대부 문인 문화와 도불 문화와 같이 송대 문화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완식, 〈「漁父詞」研究 - 그 類型과 思想的 背景을 中心으로〉,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佛敎 〈漁父詞〉에 대한 考察-중국을 중심으로〉, 《又石語文》 8집, 1998.
- 박홍준, 〈鼓子詞의 分類와 그 文學史的 意味〉, 《中國文學》 110집, 2022.
- 이동향, 〈張志和와 漁父詞〉, 《中國語文論叢》 28집, 2005.
- 賈平, 〈宋詞與民間文化〉,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 劉永濟, 《宋代歌舞劇曲錄要》,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 劉航, 〈鼓子詞考論〉, 《中國詩歌研究》 12輯, 2016.
- 羅慧, 〈佛曲의 傳入及其與法曲之關係〉, 《樂府學(第3輯)》, 2008.
- 任二北, 《敦煌曲校錄》,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18.
- 施蟄尊, 〈張志和及其漁父詞〉, 《詞學》 2輯, 1983.
- 唐圭璋 編纂, 《全宋詞》, 北京: 中華書局, 1999.
- 田耕宇, 〈隱逸觀念의 新變〉, 《湖北師範大學學報》 第3期, 1996.
- 吳熊和, 《唐宋詞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4.
- 徐艷麗, 〈論漁父詞系列詞調의 發展與詞史意義〉, 《西華師範大學學報》 第1期, 2003.
- 張莉, 〈宋代七夕詞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周夢, 〈釋家詞寫作傳統研究〉, 江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23.
- 周裕鍇, 〈宋代禪宗漁父詞研究〉, 《中國俗文化研究》 第1輯, 2003.

中國基本古籍庫V8.0 (<http://server.wenzibase.com/spring/front/read>)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CBETA 線上閱讀 (<https://cbetaonline.dila.edu.tw/zh>)

<Abstract>

The Yujia'ao Ci emerged as a new form of Yufu Ci during the Song dynasty, driven by a transformation in the concept of reclusion and the evolution of music after the mid-Tang period. Its new aspects are seen in three ways: It was enjoyed as a Guzi Ci at literati gatherings, focusing on themes of literati friendship and farewells, and became particularly skilled at depicting waterscapes. Ouyang Xiu's Yueling ti contributed to a dramatic shift in the Southern Song Ci. It utilized Daoist thought and immortal themes. Due to its presumed Daoist musical characteristics, its themes came to include prayers for longevity, longing for immortals, and the pursuit of the immortal realm. It was created as a Buddhist Yufu Ci. Adopted as a Buddhist genre because it was a faqu, similar to the mid-Tang monk Shi Decheng's Bozhao Ge. Monks, understanding its Guzi Ci form, gradually focused solely on Buddhist subjects.

These three new aspects suggest that Song dynasty Yufu Ci should be viewed from the diverse perspectives of literati, Daoist, and Buddhist culture, rather than solely as a culture of reclusion.

Key Words : Fisherman, Bozhao Ge(밭도가), Yufu Ci(어부사), Buddhist Yufu Ci(불교어부사), Guzi Ci(고자사)

